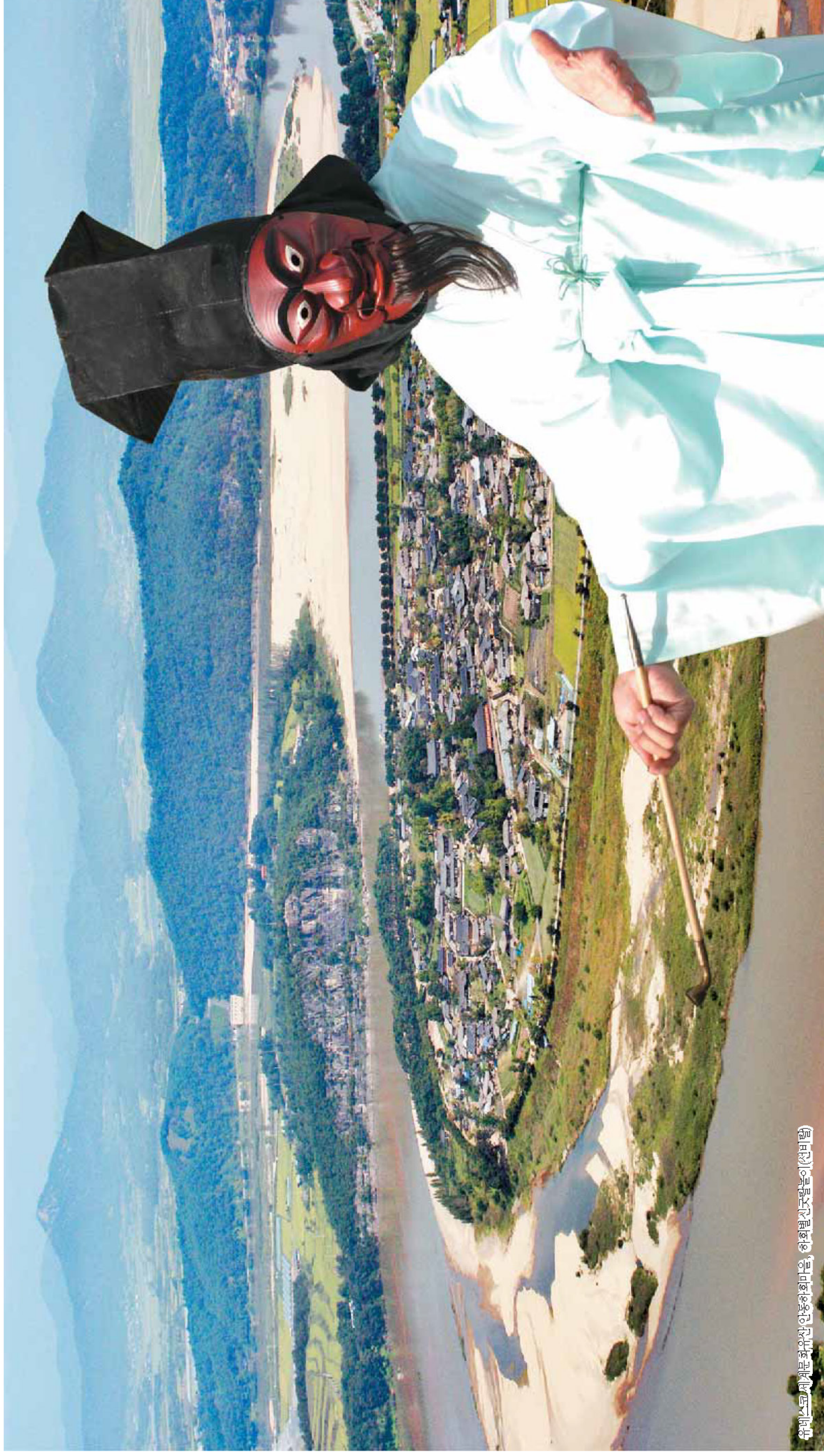


경상북도 의회소식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3. 10. (제264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경북도민 민생관련 조례안 처리

도정 사업장 현장 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정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세부일정으로 8월 23일 오후 2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집행부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등이 이어졌으며, 9월 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했다.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권영만(봉화)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명호(안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

제264회 임시회 개최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오늘 처서를 맞아 한줄 쉼인 가운데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과 동해안 적조피해 현장방문 등 도정과 민생현장을 살피는 폭넓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침통감은 무더위와 가슴속에도 에너지 접착 실천과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에서는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중앙평가에서 4년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도 교육청에서는 "제3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높은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대 후반기 지난 1년 동안은 도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는 "소통 중심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

해 청와대,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를 찾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의정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연구하며 일하는 경북의정을 펼쳐 오는데 전 의원님이 온 정열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9대 후반기 의정활동도 그동안 노력하신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도정과 도민의 삶을 더욱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일본 방위백서 강력 규탄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7월 9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3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또다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함에 대해 9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일본의 이와같은 행동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며, 급변 들어서도 2월 5일에 독도 등 영토문제 전담부서 설치,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개최, 3월 26일에 독도영구 고등학교 교과서 김정발표, 4월 6일에 외교청서에 독도 기슭 등으로 영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진실과 실체를 밝혀주는 역사적 사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시대역행적이고 쇼베니즘적인 정치형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본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과 정치적 망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제 미디어의 전략을 재촉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

Contents

차례

지면안내

의정소식 단신 / 의정만평	2~3면
인물포커스 /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인터뷰 김수용 교육위원장,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면
특별기고 신인회 계명대학교 총장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5면
상임위원회 활동	6~12면
인터뷰 5분자유발언	13면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건강칼럼 김경호 영동한의원장 - 등산 중 발목 삐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14~15면

의정만평



경상북도의회소식

발행인: 송 필 각 기획·편집: 임현 경, 남정 해
편집인: 이 대 담 발 행 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권영만(봉화) 의원, 부위원장에 김명호(안동 2) 의원 선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제 264회 경상북도 입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을, 부위원장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을 선출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마지막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은 총 15명으로 권영만, 김달보, 김명호, 김수용, 김영기, 박기진, 변우정, 심정규,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태식, 장두옥, 장세현, 홍광중 의원

이며, 2014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만 위원장은 "경북도와 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



2013년 을지연습 참관 및 관계공무원 격려



송필갑 경상북도의회의장은 8월 20일 오후 2시 박성만 부의장, 한혜련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2013년 을지연습 참관 및 관계공무원 격려를 위해 경상북도 중무시설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중무시설 내 각 실시부서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뿐만 아니라 재해나 재난,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안보의 종합적 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송필갑 의장은 "유사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3 을지연습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번 훈련을 통하여 민·관·군이 통합된 방위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경상북도의회 - 경북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와 경북경찰청은 8월 26일 오전 11시 경북경찰청 회의실에서 도민의 자발적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과 대국민 참여유도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필갑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천 경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 공무원 등이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기관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시행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앞으로 이같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문화구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10점)를 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무사고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

의회사무처, Mini 민의의 전당 개최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 독도정책 특강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처장 이태암)는 7월 24일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의 독도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0회 Mini 민의의 전당'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등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정태 교수는 강연에서 동아시아의 전략환경과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대한민국의 독도전략과 실제, 독도가 우리민간 이유 등을 강조하였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전통향토음식 시식, 로컬푸드 관광상품화 모색

의회구내식당에서 예천 용궁순대 시식회

경상북도의회는 9월 6일 제264회 입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고유의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계승·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전 도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예천 용궁순대를 시식하며 로컬푸드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했다.

용궁순대는 경북 북부지방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던 대중적인 먹거리로써 예천군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하여 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음식이다.

한편 이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이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송필갑 의장은 "앞으로 향토음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명품 경북교육의 선구자! 성숙한 교육자치 실현에 앞장



김수용 교육위원장(영천시 2)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향상”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경북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명품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용 도의원(영천2)은 위와같이 본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수용 위원장은 제8대·제9대 도의원으로서 제9대 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후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생자살이나 학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교권침해와 함께 고민해야 할 학생 인권 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문제, 비정규직 해소 문제 등에 대하여 교육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갈등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원할히 수행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심의·의결,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곳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곳에는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평가와 반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경북교육청이 2013년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2년도에는 당사자(집행부·학원관계자·학부모 등)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쟁점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토론했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통하여 최적의 안으로 통과하도록 관철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였고, 2013년도 1월에는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6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단독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의사 진행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발언시간 체크기를 도입하여 합리적 의사진행을 도모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 입지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상임위원회에 참석시킴으로 일선의 교육관계자들과 소통 기회도 확대했다.

김수용 위원장은 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요즘 학생들에게 부족한 애국심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도민의 피땀 어린 예산 헛되지 쓰는 일 없도록 예산심사 강화



권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봉화군)

지난 9월 6일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권명만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의 혈세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명만 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행정정보복지위원장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오면서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3개 시도의회(경북, 대구, 부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권 위원장은 경북도와 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는 몇 가지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 시책사업 추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적극 지원되도록 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할 것이다.

둘째로 삭감위주의 예산 심사 원

칙을 확립하겠다.

집행부의 재정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예산심사의 근본 취지를 살려 삭감위주 심사원칙을 확립하겠다.

셋째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 즉흥적이고 선심성 있는 사업은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반드시 거시적인 계획과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겠다.

넷째로 특별회계인 교육비 예산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심사하겠다.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성폭력 급증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실정으로 교육비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예산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가 유익한 사업에 쓰여 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면서 책무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많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포부를 밝혔다.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신 일 희 계명대학교 총장



왜 지방분권이여야 하는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그러해야 하고, 수도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과 지역사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한을 배분하고 자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심하고, 오랜 기간 중진국의 수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은 대체로 발전이 지체되고, 발전 동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분야에 따라서는 지방이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법률로 이를 통제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정 과제입니다. 그동안 역대정부도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평가한 역대정부의 분권정책의 성과나 결과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동안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처럼 그동안 역대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정성, 즉 분권 의지가 빈약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권과제의 발굴에서부터 최종 국회통과 까지는 어렵

고, 복잡하며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이 있고, 군데군데 고관료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만큼 강력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들의 반대와 국회의 비협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가져올 미래의 큰 국가적 이익보다는 당장 자신의 권한위축만을 생각하는 고위관료들의 심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어렵게 마련한 법

회로 이송만 되면 수많은 소관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흩어져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행정부의 분권노력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을 위한 역대정부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수준은
국가와 사회의 선진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불개정안도 국회의 협조가 부족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주민들로부터 체계적인 분권요구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들이 분권을 요구했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분권해 달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4단체 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크지 못했습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끝으로 대통령소속 한 개의 분권추진기구가 가지는 원천적 힘의 한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관련 법률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는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렵게 마련한 행정부의 법률개정안이 국

앞으로 지방분권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프랑스나 일본처럼 「지방분권추진일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 각각 그 특별법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범국가적 분권추진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우선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분권과 자치발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간성들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지나치게 지방분권

추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권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만의 분권추진기구로는 지방분권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지방분권을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워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고, 조직이나 체계도 미약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체제가 요구됩니다. 지역주민들도 분권과 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분권운동이 본래는 자신들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수준은 국가와 사회의 선진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분권과 자치발전이라는 과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지도자와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 일에 관심과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관광 문화유적의 보전관리와 개선방안 모색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개선방안 협의



1.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2. 경주시 관광문화사업 현장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013년 8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과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개최 예정인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처리안건인 '예결특위의 구성'은 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되어, 내년 6월 30일 기간까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13추경예산과 2014예산안을 심사하며, 다가오는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의회운영위원회 현지확인 실시

‘도의회 운영관련 주요방향 및 현안토의’와 ‘관광문화사업 현장확인’을 8월 23일 본회의 종료 후, 1박 2일 일정으로 신라문화의 고도 경주에서 실시했다.

각 현지확인 장소별 관계공무원과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청취하며, 관광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현지토의가 있었다.

태종무열왕릉 참배를 시작으로 진지왕릉·흥덕왕릉을 참배하고, 아경과 함께하는 반월성, 꽃단지, 안압지 및 교촌한옥마을 등의 달빛기행을 실시했으며, 우양미술관에서 전시중인 ‘박수근·이중섭 미술전을 참관하고, 조성공사중인 동궁식물원을 현지시찰,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강원도의회에서 제9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3년 7월 25~26일 강원도의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개선방안 등 안건협의와 토론 등을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 주요처리안건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하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지속적인 투자 촉구건의안’ 및 ‘전국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요소에 제출했다. 🏠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 ☑️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 ☑️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발령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Q&A

- 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발령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발령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발령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Q**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때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발령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서약접수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실천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실천내용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발령·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현대화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8월 26일 상임위를 개최, 오전에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며 학벌보다는 실력을 인정받는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채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과 여성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함이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김희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는 고등학교졸업자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이번 조례안과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결
전통시장 현장방문 통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및 조례안 심사

오후에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이 이바지할 목적으로 김종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고,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하고 앞으

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9월 2일에는 예천군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예천군 이왕용 부군수와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길수 상인회장의 시장현황과 예천군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의·애로사항을 듣고, 다른 전통시장과의 차별화된 특징과 서비스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의 시간을 마친 후 기획경제위원들과 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직원

들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함께 추석맞이 장보기를 하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을 홍보했다.

이어 3일과 4일 이틀간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점추진 시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강원도 남이섬의 관광개발현장과 속초시장 및 주문진시장 등을 방문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여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2. 예천군 소재한 상설시장 방문
3.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장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2



3

1. 2. 울곡연구원과 오죽현 방문
3.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회의장면



1

임산부 주차장 설치 및 주차료 감면 추진 '울곡연구원' 방문 여성인물 조명사업 청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등 조례안 의결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8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채옥주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위원장은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방문 시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토록 하는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박진현 의원(영덕)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보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2년마다 도민의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도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출산 장려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신사임당 부덕(婦德) 선양사업 사례 등 청취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과 부정수령시 가산징수 환수를 규정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채옥주 위원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등을 의결 했고, 앞으로도 민생관련사항 조례 등을 제정·정비하여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의결 조례는 9월 6일 제 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강원도 '울곡연구원' 방문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의원들은 9월 4일 신사임당 등 여성인물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곡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울곡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출연한 학술연구기관으로 '울곡 이이선생의 학술사상연구'와 '신사임당 부덕(婦德) 선양사업' 등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방문단을 맞아 정문규 원장은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여류서화가로, 현명한 어머니로 존경 받고 있는 분으로 부덕 선양사업으로 '신사임당 상' 시상, 추모 문예경연대회, 사임당 예절·다도대학 운영, 추모 현대제, 유혼선양 웅변대회, 다문화가족 종합 생활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북도 의회에서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도 표했다.

채옥주 위원장은 경북도에서도 '장계향' 등 경북 여성인물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연구원 방문을 통해 청취한 신사임당선양사업 사례 등을 사업추진에 귀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은 울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현모양처(賢母良妻)를 상징하는 인물로 5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추앙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여성인물로, 아들 없는 집안의 다섯 딸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시와 글씨,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인품과 재능을 겸비한 한국의 영원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이후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을 견학하고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요절한 여류시인 난설헌(허초희 : 1563~1589)의 생애와 작품을 관람하는 일정을 가졌다. 🌸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이stanbul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현지활동 경북문화 세계화 확인, 지역간 문화교류확대 기대

당면 현안업무 보고, 조례안 심사 의결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4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인 8월 26일 소관 분야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 5일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합병 인수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경상북도관광공사의 각 단지별 사업추진실태와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어렵게 합병을 이루어낸 만큼, 지속적인 관광개발과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특히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해 관광 경북의 큰 틀을 다시 짜는 독자 공기업 모델로 변신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동안 터키 이스탄불시 일원에서 펼쳐질 『이stanbul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의 현지 일정별 주요 행사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올 가을 이스탄불에서 터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의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지구촌 대항연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경북도와 경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문명사의 중심, 이스탄불에서 ‘고유문화 한류’를 세계에 충분히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제1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북도의 브랜드를



마이스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환경친화적인 지역축제 장려

제고하고 지역 마이스(MICE :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박병훈 의원(운영위원장, 경주 1)이 대표발의하고 이달·이상호·장경식·최학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도내 지역 축제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김명호 의원(안동 2)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수·

박권현·박기진·배수향·서정숙·심정규·이상호·장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심사에서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stanbul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개막식 등 참관

문화환경위원회는 현지 활동으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열린 『이stanbul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개막행사 등을 참관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지방문에서 위원들은 터키인 6.25참전용사 감사행사에 터키인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돈독한 우정을 나눴으며, △한국문화관 개막식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본 행사 개막식 △실크로드 기념비 제막식 △한국대표작가 사진전 참석과 경북 및 시군 홍보관, 불포럼 홍보관 등을 둘러본 후, 그동안 준비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남은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면서 품격 높은 문화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노라마박물관 관람과 그랜드바자르를 시찰하고 보스포러스해협 양안의 자연 및 도시경관도 살펴보았다.

한편, 전찬걸 위원장은 “경북도에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세계 40여개국이 참가하는 대형 국보급 문화행사를 한국의 명예를 걸고 야심차게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면서 “이번 행사가 앞으로 문화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 2.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열린
『이stanbul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에서
6.25참전 용사 감사 행사와
한국 홍보관 참관

3. 한국 문화관 개관식

농수산위원회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FTA 개방화 시대 농어촌 위해 최선 방안 모색 살고 싶고 되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건설

당면현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8월 26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을이 시작됐다는 처서가 잊그제 지났지만 더위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적조, 냉수대, 폭염, 전력위기 등으로 올여름은 어느해 보다 농어민들의 고통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다국가간 FTA 개방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농수산국·농업기술원 당면현안 업무보고에서 노후위협 저수지 현장점검 결과 35개소에 도 재난관리기금 등 39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중에 있다고 농수산국장이 보고하자 9월에 수퍼태풍이 온다는 기상청 소식을 들었다면서 개소당 평균 1억원도 되지않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정비가 가능하며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여름 같이 적조피해가 심한 적은 없다면서 피해액은 17억여 원이지만 실제피해는 3~4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수온이 떨어지고 비가 와서 적조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보상이 너무 미약하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하는 등의 피해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여름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관리에 적잖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안다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 9억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집행부에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축사시설을 현대화, 스프링클러 설치 등 축산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1. 2. 적조피해 현지확인

3. 영양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지확인

실질적인 지원 및 피해복구 대책 모색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확보 및 활로 구축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현장 확인

농수산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중 영양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고추유통공사에 들리 보고를 받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용 농기계 334대, 운반대행차량 2대, 지게차 2대 등의 장비를 가지고

'10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밭작물용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고추유통공사는 불합리한 고추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원형상태의 고추 건조 방법을 개선하여 소규모 고추재배 농가가 많은 영양지역에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선별 포장장, 예냉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효율 연속 건조시스템 2기와 고추분쇄 가공라인 1기로 연 14,000톤의 홍고추를 팔리고, 1,000톤의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있는 공사로 작년에는 7억 4천여 만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영양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고추가 올해는 적은 감우량과 높은 기온으로 풍년이 들었지만 가격이 낮아 농민들은 농사가 잘되도 걱정 못되도 걱정이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확보 및 활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고추유통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여기 모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꼭 반영해 나갈 것이며, 연어가 죽을 때는 고향으로 되돌아오듯, 살고 싶고 되돌아오고 싶은 살맛나는 농어촌을 건설하자고 부탁했다. ☀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봉화지역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2. 영주지역 풍기~단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문화재 발굴 현황과 사업추진 상황 청취
3. 의용소방대 활성화 현장간담회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위한 개선방안 모색 주요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 모색 적극적 의견개진 민생현장 의견 적극 수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민생관련 조례·결의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린 제264회 임시회기중 8월 26일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을 각각 심사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현장간담회 개최

8월 26일 오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의성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남·여연합회 회장단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의용소방대의 제도, 조직, 운영, 지원사항 등 전반에 대해 현행 제도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증액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 △도 의용소방

대 연합회 경비 지원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장두옥 위원장은 매년 도내에 발생하는 각종 화재나 태풍 등 재난사고 발생시 어려운 여건하에서 솔선해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묵묵히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8월 29일에 봉화군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과 영주시 풍기~단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했다.

이번 현지방문은 폭염 및 태풍에 대비하여 주요 건설사업현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 지방하천 홍수방어능력 증대와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사중인 봉화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안전관리실태 및 사업진척 등 현황 보고를 받고 박노국 봉화군수 안내로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공사에 질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영주 풍기~단산간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박성만 부의장, 김종천 지역도의회와 함께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청취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풍기~단산간 도로는 총 9.42km에 43,866백만원이 투입되며 2015년에 완공예정이고 현재 2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특산물의 빠른 수송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생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현장의 목소리 크게 듣기 위한 의정활동 전개 인성교육강화 위한 체험학습장 현장 견학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취약 계층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절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으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경상북도 주민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방문 경상북도교육청 청사이전 추진상황 점검

도 교육청 청사이전등 추진상황 점검

교육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경상북도교육청과 문경교육지원청의 이전 계획과 봉화지역 폐교 재산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했다.

이번 현지방문은 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과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방문 첫번째로 폐교된 봉화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재산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전이 확정된 경상북도교육청과 문경교육지원청 이전 예정지도 방문하였다. 2015년 7월 준공 예정인 도교육청은 안동·예천지역에 조성중인 도청이전 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49,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8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교육청 청사 건립공사는 건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남쪽에는 폭 50m, 서쪽에는 폭 24~13m의 도로가 신설되고 생태학습마당 등이 조성되며 청사내 냉·난방 등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70% 이상 지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여러 인증기관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등 인증을 받아 명품청사 건립에 초석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건립현장에서 현황을 청취한 김수용 위원장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경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교육정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안전관리를 통하여 명품 청사건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지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들도 친환경 청사 건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요자 지향적인 공간조성을 통하여 미래 수요에 맞는 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구 봉화여자중 고등학교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의견 교환
2. 경상북도교육청 신청사 이전지 방문
3. 문경새재도립공원 트레킹코스, 학생 현장체험학습장 견학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윤창욱 위원장, 미래 경북 발전 위해 온 힘 쏟아



윤창욱(구미시 2)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작년 9월 10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경북도 및 도교육청이 제출한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임기가 만료되었다.

윤창욱 위원장은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도 경북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은 10조원에 조금 모자란 천문학적 액수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치밀하고 꼼꼼히 심사하여 경북도 29건 128억원, 도교육청 9건 3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여 선심성·남비성 세출예산을 과감히 줄였다.

또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했다.

아울러, 윤위원장은 유일한 구미출신 재선 의원으로서 구미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쏟으며 구미지역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그 성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비와 송정 119 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도비를 대거 유치했다.

윤 위원장은 "진정 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으로도 후회 없는 의정 활동을 통해 미래 경북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

새마을세계화 성공추진 TF 구성 제안

이왕식 의원(의성군 1)



새마을세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도의회, 중앙부처, 민간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세계화 성공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민의 반영과 경북도와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재원 등 협력,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활용 등 사업추진 협력체계의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을 항공 MRO 메카로 육성 촉구

황이주 의원(울진군 2)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항공기 수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날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발하고, 울진비행장에 유지, 보수, 정비, 검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항공기 MRO센터" 건립을 도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경북을 항공 MRO 메카로 육성" 하라고 제안했다.

호국경북, 광복 70주년을 준비하자

김명호 의원(안동시 2)



내후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신도청시대가 새로운 천년을 향해 출범하는 해이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는 해입니다.

3대 독립운동가 가문의 증후를 감당해냈던 경북의 자랑스러운 어류 독립투사 김탁(1863~1929) 여사의 영웅적인 삶을 재조명하여 '여종군자' 장계량 선생에 이어 경북의 대표여성으로 선정하여 기립 것을 제안합니다.

도청이전지 임시 주거단지 조성 절실

이영식 의원(안동시 1)



도청이전지의 이주자들에게 자체적 주마을 조성 또는 이주자 택지에 집을 지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1단계지구 52세대중 상당수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원한다며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경북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

했으나 부정적인 입장만 전달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6조)에는 월거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단지를 보장하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918번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조속 시행

박진현 의원(영덕군 2)



918번 지방도는 현재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실상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주민과 기업, 관광객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도내 북부내륙지역의 낙후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영해~영양

~봉화를 잇는 918번 지방도의 선형을 하루 빨리 개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해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은 물론, 많은 사람의 꽃은 왕래가 이루어 지기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방안

강영석 의원(상주시 2)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체경능으로 보장되어 있는 규칙제정권과 이러한 권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상북도회의 법규운용 개선을 통해서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자체적

인 제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내부규범이 조제로 제정되어 있어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회 스스로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지역 중소기업 참여해야

배수향 의원(김천시 2)



최근 대구경북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입찰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이 높아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월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김천의료원 장례식장의 식당 및 매점 공개입찰에서 서양의 대기업(CJ프레시웨이)이 선정되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 도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이라도 의회, 집행부 모두 한 목소리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화, 지역제한입찰금액의 현실화, 입찰조건 완화 등 제도적 방안을 촉구한다.



제264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김희수 의원 외 3인
제정이유는 경상북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황이주 의원 외 5인
제정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김종천 의원
제정이유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추재천 의원
제정이유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는 실력을 인정받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업무 전담부서를 「보건복지국」으로 일원화하고 특화작목시험장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변경이 필요한 다른 조례상의 단순직위명을 일괄개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11~'13년)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3회차인 '13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도민들의 행정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 군수 등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개별법령 개정 에 따라 이미 위임된 사무 중 시장 · 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지구수정, 근거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의 소관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다.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박진현 의원 외 3인
제정이유는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산업 · 교통의 발달 등으로 심장 · 뇌혈관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채옥주 의원 외 1인
제정이유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채옥주 의원 외 1인
개정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방문 시 입장료 · 관람료 · 주차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발의자** : 박병훈 의원 외 4인
제정이유는 마이스(MICE)산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에도 도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이며 도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안동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등과 더불어 경북도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발의자** : 김명호 의원 외 8인
제정이유는 도내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 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정영길 의원 외 7인
제정이유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전찬걸 의원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서식 산란장 등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도모 및 수산자원 보호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변우정 의원 외 5인

폐지이유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 제3294호, 2011. 12. 26)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변우정 의원 외 3인

개정이유는 「방조제관리법」에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둔 방조제관리심의회를 폐지(법률 제6140호, 2000. 1. 12)함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회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이왕식 의원 외 10인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농공단지는 도내 20개 시·군에 소재한 지역경제의 뿌리이나 관리공단 등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며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등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이영식 의원 외 9인

개정이유는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해 “도청신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위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회의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발의자 : 김원석 의원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이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발의자 : 구자근 의원 외 5인

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행정제도 개선과제인 「응시수수료 감면」 추진 일환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시험의 응시수료를 면제하기 위함이다.

건강칼럼

등산 중 발목 삐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김 경 호
영동한의원장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계곡 등 자연을 찾아 등산을 하거나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흔히 삐었다는 것은 염좌라 하는데, 염좌는 인대와 근육이 외부적인 손상이나 사고에 의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대(ligament)는 관절

을 안정시키고, 단단하게 고정하며, 관절을 정상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발을 삐었을 경우에는 단순염좌와 골절을 잘 구분하여 치료해야 한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X-ray를 촬영해 보아야 하며, 염좌는 발목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므로 응급조치를 한후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좋다. 골절과 염좌는 둘다 통증과 부종이 있으나, 통증이 상대적으로 심하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있다면 꼭 X-ray를 찍어서 골절을 확인해야 한다.

염좌시 응급조치는 RICE의 원칙에 의해 시행하면 좋다.

RICE의 R은 Rest 즉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염좌는 움직이지 않고 쉬면 좋아 지는데,

가벼운 염좌후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하여 쉬지 않고, 발목관절을 많이 사용한 후에 습관적으로 발목염좌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I는 Ice로서 3시간 정도마다 15분~20분 정도 얼음 찜질을 하면 된다.

얼음 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멈추고, 부기를 줄이며 가벼운 마취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한다. 단 너무 장시간 얼음 찜질은 좋지 않다.

더러 염좌후 온찜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냉찜질을 해야 한다. 온찜질은 염좌후 24시간~48시간이 지난후 더이상 붓지 않을 때 해야 한다.

C는 Compression으로 염좌된 부위를 누르는것(압박)을 말한다. 얼음 찜질후 압박 붕대를 염좌된 발목부위에 단단하게 감아 압박함으로써 염좌된 부위가 더이상 붓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이때 너무 강하게 압박붕대를 감지말고 혈액이 통할정도로 붕대를 감아야 한다.

E는 Elevation으로 염좌된 부위를 심장위치보다 높여 주는것을 말한다. 염좌부위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체액이 빠져 부기가 감소하고 새로이 붓는것을 막을 수 있다.

위의 RICE 응급조치는 발목 염좌 뿐아니라 다른 부위의 염좌나 특정 관절의 과사용 후 관절이 붓고 아플 때에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다.

한방에서는 염좌에 위와같은 응급조치후 침, 뜸, 부항을 실시하여, 심하지 않은 염좌일 경우 2~3회 정도의 치료후 통증과 부종이 사라질 수 있으며, 통증이 없어지더라도 습관성 염좌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해야 한다.

또한 예로부터 염좌부위에 치자를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치자는 성질이 차고 냉해서 염좌 초기에 염좌 부위에 붙이면 부기를 감소 시키며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동한의원 / 영천시 금노동 544-1 (☎ 054-332-8398) 🌿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해 UN과 함께 지구촌 빈곤퇴치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마을 리더봉사단 파견 및 시범 마을 조성

"성공경험 전수와 의식개혁으로 지속발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파견지역 : 아프리카(3개국), 아시아(2개국) 15개 마을
·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인도, 필리핀
- 파견인원 : 매년 90명(팀당 6명)
- 의식개혁,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현지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 초청 새마을 연수

"맞춤형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아시아, 아프리카 등 62개국 2,467명 초청 연수
- 기존 선진국 개발원조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새마을 운동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
현지 적용 가능한 Action Plan 수립 등

한국형 빌레니엄발라저 조성

"UN의 MDGs(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함께합니다"

- 경상북도, MP재단, KOICA, UNWTO ST-EP재단 공동
- 2개국(우간다, 탄자니아) 4개 마을 / 2009년~2013년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활동

"젊음의 열정과 재능을 지구촌 이웃과 공유합니다"

- 기 간 : 하계방학 2주간
- 파견인원 : 90여 명(4개팀)
- 의료봉사, 새마을운동 및 정신 홍보, 환경개선 봉사활동 등

